

# 매일 1억 마리 이상의 유산균 먹인 '명품돈육'

### 전북대 '두지포크' 국제발효식품엑스포서 인기 '파워돼지' 시식회 개최... 장건강·면역력 UP

전북대학교 동물분자유전육종사업단(단장 이학교)의 연구 성과로 탄생한 명품 돈육인 '두지포크'가 오늘까지 열리는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에서 선보여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행사에서 선보이고 있는 '두지포크'는 전북대 동물생명공학과 이학교 교수, 서울대 김영훈 교수 등 미생물·축산·수의 전공 10여 명의 교수들이 산학협력 연구를 통해 개발한 프로바이오틱스 돈육이다.

연구진들은 축산 4대 문제(질병, 범새, 분노처리, 생산성 저하) 해결을 위해 '예코 프로바이오틱스 솔루션'을 구축했다. 예코 프로바이오틱스 솔루션이란 장에 유익한 미생물(프로바이오틱스)을 활용하여 깨끗한 환경에서 건강한 돼지를 키우는 친환경 동물복지 시스템이다.

전북대와 연구를 같이한 양돈농가 두지팜은 이 시스템을 도입하여 농장

에서 사육중인 돼지에게 사료와 음식으로 매일 1억 마리 이상의 유산균을 먹이고 축사 소독 시에도 활용하고 있다. 태어날 때부터 유산균 환경에서 자란 돼지가 바로 '두지포크'다.

전북대가 분석한 결과, 두지포크는 다른 돼지고기에 비해 사람에게 좋은 불포화지방산은 6~10% 많고 6% 더 부드러운 것으로 나타났다.

영양 면에서도 비타민C, 오메가 3 등이 풍부하다. 특히 연구진은 프로바이오틱스 급여가 공생미생물과 숙주 사이의 상호작용을 변화시켜 장내 면역유발 유전자 발현을 감소시킴으로써 장내 염증을 줄이고 장관 발달과 장 건강을 개선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미국 국제학술지 플로스원(PLOS ONE) 8월호에 게재, 면역력이 강화된 파워돼지 생산 방법이 큰 주목을 받기도 했다.

이학교 동물분자유전육종사업단장



전북대학교 동물분자유전육종사업단의 '두지포크'가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에서 선보여 큰 인기를 끌었다.

은 "산학협력의 연구 성과인 두지포크가 소비자들에게 소개하는 공식 자리에 참여한 것이 올해에만 3번째다"라며 "맛있고 안전한 음식에 대한 소비자 선호가 증가하면서 유산균으로 키워낸 돼지고기에 큰 관심을 주시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믿을 수 있는 국민을 위한 축산을 위해 꾸준히 연

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두지포크는 온라인(<https://www.doozypork.com/>)을 통해 판매하고 있으며, 두지포크로 만든 수비드 학원을 전주 객리단길에 위치한 온라인즈(전주시 완산구 전주객사1길 100)에서도 맛볼 수 있다.

/장은성 기자

# "너도나도 공모전 도전하세요"

### 도교육청, 내일부터 작품접수... 중·고생 대상 그래픽티 분야 신설

전북도교육청이 '2019 너도나도 공모전'을 개최한다.

너도나도 공모전은 전북교육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고, 교육가족이 자유롭게 제작한 특색 있는 홍보 콘텐츠를 확보하기 위해 매년 진행되고 있다.

공모 분야는 사진·그래픽티·동시 3개 분야로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이야기를 주제로 하면 된다.

참가대상은 사진은 교직원, 그래픽티는 중·고생(협동작품 가능), 동시는 초등생이다. 응모기간은 오는 5일부터 25일까지로 전북지역 학생 및 교직원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응모방법은 전북교육소식 홈페이지(<http://news.je.go.kr/>)에서 공모전을 클릭, 공모전 접수(→신청) 게시판에 출품자 인적사항과 작품 제목·작품 소개 등을 작성한 뒤 작품을 첨부하

면 된다. 동시의 경우 초등생을 대신해 담임교사나 학부모가 대리 접수할 수 있다.

다만 올해는 1인당 1편만 응모 가능하며, 2작품 이상 등록시에는 선 등 록한 1작품만 심사 대상이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후 도교육청은 11월 26~29일까지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2일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수상작은 각 분야별로 대상 1점, 최우수 1점, 우수 2점, 장려 4점 등 총 24점을 선발할 예정으로 수상자에게는 교육감 상장과 상금이 수여된다.

수상작은 전북교육소식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게재되고, 도교육청 1층 갤러리에서 전시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교육청 공모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 도교육청, 평화 되새기는 역사 현장탐방 추진

전북도교육청이 자유, 인권, 평화의 의미를 되새기는 민주화 역사 현장탐방을 추진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2일 민주시민교육에 관심이 많은 도내 고등학교 2학년 30여 명을 대상으로 교과지식과 연계한 민주화 과정 현장체험을 진행했다.

이번 현장체험은 민주주의의 의미와 가치를 제고하고, 민주적 사회참여정신, 인권, 자유, 평화감수성 등을 배우고 체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학생독립기념일(11월 3일)을 맞이하여 부당한 힘과 권력에 항거하고 비판적 사고와 참여로 사회변화를 일으켰던 민주화 열사들의 숭고한 정신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인식하는 시

간으로 꾸렸다.

현장체험은 한국민주화 운동의 역사를 배우는 '민주인권기념관'을 시작으로, 민주화의 고통을 안고 있는 상징적인 장소 '서대문형무소역사관', 독립과 민주주의 길을 엮보는 '서대문독립공원' 등을 탐방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인권, 자유, 평화감수성을 키워 일상적인 삶 속에서 비판적 사고 능력을 기르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능동적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며 "지역 청소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사회문제를 변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사례 공유 및 학습의 장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전북교육청, 보건교사 전문성 강화 연수 실시

전북도교육청이 보건교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 1~2일 도내 초·중·고·특수학교 보건교사 64명을 대상으로 '2019 사례별 응급처치 연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학교내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응급처치 및 관리를 위한 보건교사들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연수는 전북대학교 간호대학 기본간호 실습실에서 진행, 강사로는 전북대 간호대학 노주희·박숙경 교수가 참여했다.

먼저 노 교수는 △머리 부딪힘 △발열 △배탈 △발작(긴질) △저혈당 △알레르기 △치아절단 및 발치 등 내과계 응급처치에 대해 설명했다.

또 박숙경 교수는 △코피 △눈의 이물질 △화상과 자상 △각종 골절 등 의과계 응급처치에 대해 강의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보건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내과계·외과계 응급상자의 건강 사정을 알고,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의료 처치 및 대응력 높일 수 있도록 연수를 마련했다"면서 "이번 연수가 보건교사들의 응급의료 업무 능력과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가 최근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군산 베스트웨스턴호텔에서 '블록체인 모델링' J-cube 맞춤형 창업교육을 운영했다.

# 전주대, 4차산업혁명 맞춤형 소규모 창업강좌 운영

전주대학교(총장 이호인)는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지난날 31일부터 1박 2일 동안 군산 베스트웨스턴호텔에서 2019 '블록체인 모델링' J-cube 맞춤형 창업교육을 운영했다고 1일 밝혔다.

맞춤형 창업교육은 기존의 정해진 커리큘럼에 맞춰 교육생을 모집하여 진행하지 않고, 사전에 케이스타트업(k-startup.go.kr)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교육생들의 수요를 파악한 후에 커리큘럼을 편성하여 진행되는 맞춤형 소규모 강좌로, (예비)창업자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하고 분야와 창업자 상황에 맞는 교육 커리큘럼을 제공함으로써 창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개설된 창업교육이다.

전주대학교는 지난 8월에 1년 미만 창업자를 대상으로 '스타트업 빌드업' 맞춤형 과정을 운영한 바 있는데, 이번에 실시된 2차 교육은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 사례와 기업에서 어떻게 융합되어 사용되는지 실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실습형으로 진행되었다. 수강생들은 자신들의 블록을 직접 생성하여 추적시키고, 상장까지 진행하여 기술의 이해도를 높였다. 또한 자신의 창업아이템과 융합하여 고부가가치 기술로 창업아이템을 고도화하고 컨설팅을 통해 다듬는 과정을 거쳤다.

이번 교육에 참여한 김도윤 예비창업자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 깊이 있게 알 수 있는 기회로 기업의 활용

사례에 대해 알 수 있어 좋았다. 이번 교육을 통해 얻은 정보와 기술을 통해 새로운 창업아이템을 구상하여 창업에 도전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전주대학교 창업지원단 주정아 단장은 "이번 맞춤형 창업교육은 지역수요와 기술형 창업을 동시에 고려한 맞춤형 소규모 강좌로 진행하였으며, 교육생 맞춤형교육과 함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 발굴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전주대학교 창업지원단은 3차 맞춤형 창업교육은 '화학품' 분야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며, 4차는 수요조사를 통해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생 모집은 11월말에 케이스타트업(k-startup.go.kr) 및 전주대학교 창업지원단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할 계획이다.

/장은성 기자

# 도교육청, 오늘 '온비드' 전자입찰 교육 실시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오늘 전북교육연구정보원에서 재산·물품관리담당자를 대상으로 온비드 전자입찰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온비드 전자입찰에 익숙하지 않은 학교 실무자에게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마련되었으며, 캠프(한국자산관리공사)의 온비드 전문 강사(이문근 차장)를 초빙하여 온비드 이용근거 및 관련법령, 재산 대부 및 불용품 매각 등 이론과 실습을 통한 실무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진행 된다.

온비드는 공급학교를 포함한 모든 공공기관의 물품과 재산을 매각, 대부하는 온라인 공공 자산거래 시스템이다.

온비드 모의입찰에서는 입찰과정을 모두 실제와 같이 경험해볼 수 있으며 질의응답시간을 통해 각종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담당자가 모의입찰 실습으로 온비드 숙련도를 높이고, 재산·불용품 매각, 대부 시 공정하고 투명한 공개입찰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